

# 광주시 '더 크고 더 강한 문화중심도시' 만든다

### 예술인 상해보험 지원·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 8대 정책 발표 2022 세계양궁월드컵개최,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등도

광주시가 '더 크고 더 강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대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과 권리 보장을 비롯한 미디어아트 365 '풀타임' 광주 만들기, 문화 중심도시 광주 특화 환경 조성,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 공간 마련 등 세부 방침을 제시했다.

시는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 관광 명소 조성, 관광 콘텐츠 개발, 스포츠 국제도시 위상 강화 등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공모 시기를 앞당기고, 예술인 활동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인에게는 상해보험 보장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3월부터 가동하고 10월에는 미디어아트 놀이터 프로젝트 행사를 여는 등 생활 속 미디어아트를 구현한다.

시는 특히 2025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지역 특화형 전통 생활음식당을 건립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는 메타버스관을 구축해 국립 현대미술

관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명동 대표 문화마을을 조성, 상무 소각장 부지를 활용한 대표 도서관 건립, 광주비엔날레관 신축 등에도 속도를 낸다.

관광명소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는 광주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명소 조성을 목표로, 총 사업비 119억원을 들여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선비문화 체험복합관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어등산 관광단지는 법원 결정 등을 반영해 합리적인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2년간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서창 향토문화마을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컨벤션센터 건립도 차질없이 진행하

겠다는 의지다.

체육분야에선 오는 5월 세계 양궁 월드컵, 2025 세계 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 등을 통해 스포츠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스포츠 복지 확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2073억원을 투입해 총 17개 체육시설도 구축한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만이 간직한 문화자원, 4차 산업을 선도할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문화가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20일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설명회

전남도가 오는 20일 오후 2시 '2022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제협력관, 수산유통가공과, 농업기술원 등 전라남도 수출지원 관련 3개 부서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본부세관, 전남지방우정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전남지식재산센터, 전남FTA활용지원센터 등 수출 유관기관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참가 및 아마존 입점 지원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사업과 소량 수출 국제특송비 지원,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수출상품 홍보물(동영상?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수출지원시책을 안내한다.

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바우처 사업, 광주본부세관은 FTA활용 방안, 전남지방우정청은 우체국기업물류서비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협회는 해외 마케팅 지원 및 동향 등 기관별로 지원시책을 소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피스남도'를 통해 생중계하며, 수출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 관계자 등은 14일까지 전남도수출정보망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청년 신규채용 소상공인에 광주시, 인건비 6개월 지원

광주시는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절반을 6개월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7일) 기준 광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 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 등이 해당하며 지원 기간 인력 감축 없이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개 업체당 2명까지, 고용 인원 1명당 월 9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7일부터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북구 시설관리공단 출범 6일 오전 광주 북구 행복어울림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시설관리공단 출범식에서 문인 북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은둔형 외톨이 지원 구체화 광주시, 5개년 계획 수립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광주시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중장기 계획(2022~2026년)은 2019년 7월 제정된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처음 수립한 것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용역을 거쳐 완성됐다.

'공감과 연결로 사회적 고립 없는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5개 전략과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았다.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전문교육 과정 운영, 지원 네트워크 구축, 회복력 강화 기반 마련, 수용성 확대 등을 기본 전략으로 지역에 사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활동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조례 제정, 실태 조사에 이어 중장기 계획 수립까지 마친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일정 기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전남도, 식품산업 연매출 3조 시대 시동

제조·미래식품산업 442억 지원

전남도가 지역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 등을 통해 식품산업 연간 매출액 3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올 한해 29개 사업에 44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상품 개발 및 품질관리 강화 분야에 시제품 및 포장지 제작(사업비 7억원), 자가품질 검사비(2억7000만원), 유기농식품인증비(2억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2억원), 식품산업연구센터(4억원) 등 18억원을 지원한다. 자동화설비 등 식품산업 기반 확충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지원(30억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13억원), 전통식품 산업화(13억원) 등 56억 원을 투자한다.

농산물 생산과 가공, 체험관광을 포괄하는 농촌

융복합산업화 분야에는 향토산업육성(24억원), 농촌융복합 지구 조성(28억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센터 운영(13억원), 융복합 강화(6억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6억원) 등에 79억원을 투입한다.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12억원), 김치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9억원), 종균발효 식품산업 지원(1억원) 등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능성 미래식품 개발 분야에는 가정간편식 제품 개발 및 인프라 구축(10억원), 기능성 HMR실증·실용화센터 구축 196억원 등을 쏟아붓는다. 담양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신안 땅콩가공센터 건립 등 지역 맞춤형 식품산업 분야에 36억원,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구미 25억원을 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축산분야 공모 10개 선정 576억 확보

저메탄 조사료 센터 구축 등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신규사업인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등 축산 분야 10개 공모에서 모두 선정돼 5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우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7개 사업에 504억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180억원을 들여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1개소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사료 원료 전처리시설과 사료 제조시설을 전남에 시범적으로 세운다.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전문단지 조성, 2개 사업에 51억원을 투입한다. 국내산 조사료 공급 확대에 필요한 가공 및 유통시설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000ha 대규모 조사료 재배 전문단지

를 구축한다.

89억원을 들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개소를 설치, 가축분뇨를 비농업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에너지화 시설을 연계함으로써 가스, 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 시설은 1일 97t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게 된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및 공동자원화 시설 등 3개 사업에도 184억원을 확보했다.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 1개소 10억원, 축산 악취개선사업 5개 시·군 120억원, 공동자원화시설 증축·개보수 사업 3개소 54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축산 틈새 소득작목 육성에 필요한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3개 사업에 72억원을 투입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 집 인 원
인문사회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6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12
총 계		7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우체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제로 36